

---

---

#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민병욱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

---

## 目 次

I. 문제의 제기	2. 사실적 재현과 의식결정론
II. 부마항쟁의 역사적 증언과 수용	3. 상황의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
1. 부마항쟁의 역사적 사실 증언	4. 문학사회학적 수용의 한계
2. 부마항쟁의 역사적 수용과 그 한계	IV. 결 론
III.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참고문헌
1. 분노의 이념과 기념식	국문초록
	Abstract

## I. 문제의 제기

부마항쟁(釜馬抗爭)<sup>1)</sup>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당시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유신체제<sup>2)</sup>가 민주적 헌정체제의 부정, 국민기본권의 억압, 사회계급적인 통제의 강화, 안보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통하여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

1) 부마항쟁은 부마사태, 부마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화운동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부마항쟁으로 표현한다.

2) 유신체제란 1972년 10월 17일 유신의 발표, 같은 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의 공포를 통하여 시작된 헌정체제로서 이른바 10·26 사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의 피살이 일어난 사태로 종말을 맺는다.

것이라면, 부마항쟁은 그러한 독재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다. 부마항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10.26사태(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피살), 5.18항쟁(1980년 5월 18일의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서 6월 항쟁(1987년 6월 10일의 민주화운동)에 이르러 민주적 헌정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부마항쟁은, 제 3, 4, 5, 6 공화국을 지배한 군부독재체제를 민주적 헌정체제로 변환시킨 출발점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서 부마항쟁에 관한 선행 연구들<sup>3)</sup>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루어진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부마항쟁이 동시대 사회문화에 미친 충격과 그 충격을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했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고는 문학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충격 및 수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텍스트도 부마항쟁을 주제, 모티브, 소재로

3) 부마항쟁에 관해서 본 연구는 다음의 논저들에 힘입고 있다.

- 김 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Vol.29~No.2, 한국학중앙연구원, 419~453쪽.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No.1, 21세기 정치학회, 83~103쪽.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 정주신, 2008, 「10·26 사건의 배경 분석」, 『사회과학연구』Vol.18,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3~144쪽.
- 조정관, 2009,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2~NO.19, 21세기정치학회, 73~98쪽.
- 차성환, 2009, 「참여 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차성환, 2008, 「부마항쟁참여자 및 목격자설문조사 보고서」, 『부산민중의 삶과 정치의식』(부마민중항쟁 28주년 학술심포지움 총서) 민주주의사회연구소, 151~195쪽.

형상화 한 문학작품들이다. 문제는 민주화 운동을 형상화 한 문학텍스트들은 대체로 6월 항쟁에 집중되어 있고 부마항쟁에 비켜 서 있다는 것이다.<sup>4)</sup> 부마항쟁을 형상화 작품들이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임수생의 시집 『혁명철학』<sup>5)</sup>, 이규정의 소설 <멀고도 먼 길><sup>6)</sup>, 부산민족문화협회의 <부마항쟁 20주년 상황재현굿><sup>7)</sup>을 중심으로 대상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 II. 부마항쟁의 역사적 증언과 수용

### 1. 부마항쟁의 역사적 사실 증언

부마항쟁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증언들<sup>8)</sup>에서 그 항쟁 배경을

- 
- 4) 민주화 운동을 형상화 한 부산지역의 문학작품들은 대체로 6월 항쟁에 집중되어 있다. 그 사회적 이유의 하나는 부마항쟁이 제 5공화국 군부독재체제 과정에서 있는 반면 6월 항쟁이 제 6공화국 민주적 헌정체제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논저들도 부마항쟁보다는 6월 항쟁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 동 사업회에서 6월 항쟁문학작품집 『유월의 노래』(1997, 도서출판 유월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민주공원에서 발간한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전 5권, 2003)에서도 6월 항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마항쟁은 거의 소외되어 있다.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자체가 부산지역 작가들에게 부마항쟁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 5) 임수생, 1994, 『혁명철학』 도서출판 빛남.
- 6) 이규정, 2006, 『멀고도 먼 길』 해성출판사.
- 7)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2003, 「부마항쟁 20주년 상황재현굿」(구명옥 편저,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Ⅳ』 민주공원, 325~344쪽).
- 8) 부마항쟁에 관한 증언들만 수록한 증언록 혹은 증언문집은 아직 없다. 증언들은 선언문, 신문기자 취재자료, 부산시 경찰청 자료, 공소장 등과 같이 대부분 역사적 자료로서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증언이 역사적 자료의 형식으로 수록된 중요한 저술은 다음과 같다.

1979년의 정치적 사건들로 재구성하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곧 '8.9 YH여성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신민당 김영삼 총재 제명→ 10.15 부산대학교 학생 시위 시도 무산→ 10.16 부산대학교 학생 시위의 시민 항쟁으로의 확산→ 10.18 부산지역 비상계엄령 선포→ 10.18 마산 경남대학교 학생 시위의 시민항쟁으로의 확산→ 10.20 마산 창원지역 위수령 선포→ 10.26 박정희 대통령 피살→ 10.27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비상계엄령 선포→ 12.12 신군부 쿠데타.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마항쟁에 관한 증언은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부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와 시민 항쟁으로의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초점의 내용은, 『부마민주항쟁10주년 기념 자료집』<sup>9)</sup>에 수록된 '부산편 증언 17명', '마산편 증언 15명'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증언자는 항쟁 당시 시위 주도 대학생들, 대학교수들, 신문기자, 카톨릭 신부, 교회 목사, 문화예술인, 엠네스티 지부 간사, 회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공원, 2003, 『(민주공원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운동사』, 민주공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사료 목록집 : 2002년도~2004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 다시 가본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십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지역 6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 『한국의 민주화와 부산의 6월항쟁』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2006, 『(자료로 본)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  
유시춘 외, 2005, 『우리 강물이 되어 : 70.80 실록 민주화운동』 경향신문사.  
차성환, 2008, 「부마항쟁참여자 및 목격자설문조사 보고서」, 『부산민중의 삶과 정치의식』 민주주의사회연구소, 151~195쪽.  
9)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십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원, 서점주인, 상인, 무직, 고등학생 등이다. 증언자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이다. 증언자들의 구성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의 주도세력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들<sup>10)</sup>이다.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은 대체로 10월 15일, 16일 양일 간에 일어난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시민들의 시위과정, 10월 18일 경남대학교 학생들과 마산시민들의 시위과정이다. 그 과정은, '대학 교내에서의 시위→ 도심과 시청 혹은 도심 기차역으로의 시위 진출→ 대학생들 및 시민들의 합세와 경찰과의 공방→ 비상계엄령(혹은 위수령)에 의한 군인의 통제와 시위대의 해산→ 군경의 시위참여자들 검거와 고문, 법정공소→ 검거된 시위자들의 법정 구속'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짜임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의 과정은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과 군부독재세력들의 탄압 구조'이다.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은 《선언문》에서 제시한 '유신 헌법 철폐, 안정 성장 정책과 공평한 소득 분배, 학원사찰 중지, 학도호국단 폐지, 언론·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YH 사건에서와 같은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전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지'이며, 시위 구호가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언론 자유'라는 점에서 민주적 헌정체제로의 복귀이다. 물론 그 투쟁의 대상이 군부독재를 힘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신체제의 지배세력

10) 부마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학생, 기자,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일용노동자, 향만노동자, 재단사, 자영업자 등이며, 시위참여자들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언론 자유"를 구호로 하여, "애국가, 선구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즐겨 불렀다. 이런 의미에서, 차성환은 항쟁참여자들 가운데 노동자들은 유신체제 이전의 정치적 경험과 항쟁 이전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쟁의 과정에서 저항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민중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었을 뿐, 노동자계급의식의 정체성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항쟁 참여자는 국민주권의식과 자유민주주의의식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차성환, 2009, 「앞의 논문」, 207~218쪽.

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와 같이 증언자와 그 증언내용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은 당시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다.

## 2. 부마항쟁의 역사적 수용과 그 한계

‘부마사태’ 혹은 ‘부마항쟁’의 표현은, 그 발발시점 1979년에서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979년 부마항쟁은, 부산 및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출발점이다. 부마항쟁과 6월 항쟁 간의 시간적 과정에 ‘10.26 사태’와 ‘신군부의 출현’으로 제 5 공화국(1979~1987)이 가로 놓여 있다. 6월 항쟁에 의하여 민주적 헌정체제가 수립되어 1987년 제 6공화국이 현재까지 헌법 개정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9년 ‘부마사태’, 10주년인 1989년 이후에는 ‘부마 10월 항쟁’, 20주년인 1999년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서 ‘부·마항쟁<sup>11)</sup>’이라는 공식적인 표현

---

11) ‘부마항쟁’이라는 표현이 법률용어로 처음 제시된 곳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01. 7.24, 제정)과 그 시행령, 곧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396호, 2001.10.31, 제정, 시행 2001.10.31)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어서 그 시행령의 “제2조(민주화운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령명으로 제정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8.6 공포, 1990.8.17 시행),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공포, 시행) 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을 얻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민주화운동”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은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의 하나이다. 아울러 부마항쟁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현실에서 부마항쟁은 부마사태와 함께 있다. ‘부마사태’와 ‘부마항쟁’이라 표현의 거리는, ‘일부 불순좌경세력에 의한 난동, 소용, 폭동’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적 항쟁’ 간의 의미적 차이이다.

그 차이의 유효함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sup>12)</sup>에서도 확인된다.

<표 1> 민주화운동 인지도

		4·19 (%)	10·18 (%)	5·18 (%)	6·10 (%)	기타 (%)	모름 (%)	합계 (%)
지 역 별	서울	40.0	1.9	<b>50.4</b>	5.8	0.0	1.8	100.0
	경기/인천	34.8	1.1	<b>53.2</b>	9.6	0.0	1.3	100.0
	강원	29.8	0.0	<b>59.4</b>	8.4	0.0	2.4	100.0
	대전/충청	38.2	0.0	<b>48.3</b>	8.4	0.0	5.1	100.0
	대구/경북	<b>51.0</b>	2.4	36.4	5.7	0.0	4.4	100.0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 측정’을 위하여 (주)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2008년 10월11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2008.10.15),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분석표』(2008.10.15)로 간행한 바 있다. 본고는 <표1 민주화운동 인지도>, <표2 1979년 부마항쟁인지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4·19 (%)	10·18 (%)	5·18 (%)	6·10 (%)	기타 (%)	모름 (%)	합계 (%)
	부산/울산/경남	38.5	5.4	<b>44.5</b>	8.8	0.0	2.9	100.0
	광주/전라	14.4	0.0	<b>79.4</b>	2.4	1.0	2.8	100.0
	제주	10.0	0.0	<b>90.0</b>	0.0	0.0	0.0	100.0
연령별	29세 이하	32.9	0.0	<b>60.4</b>	3.8	0.5	2.4	100.0
	30대	26.3	2.2	<b>57.3</b>	12.9	0.0	1.3	100.0
	40대	33.7	1.7	<b>52.9</b>	10.9	0.0	0.8	100.0
	50대	33.5	3.4	<b>55.5</b>	4.1	0.0	3.6	100.0
	60세 이상	<b>63.9</b>	2.5	26.0	0.9	0.0	6.7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42.2	2.1	<b>47.8</b>	4.2	0.0	3.7	100.0
	대졸 이상	31.3	1.7	<b>55.6</b>	9.6	0.2	1.6	100.0
	무응답	19.8	0.0	<b>50.4</b>	29.8	0.0	0.0	100.0
민주화 수준별	높은 수준	31.1	3.0	<b>51.0</b>	12.1	0.0	2.8	100.0
	중간 수준	36.5	1.7	<b>55.4</b>	4.9	0.0	1.6	100.0
	낮은 수준	40.6	1.2	<b>48.3</b>	8.4	0.4	1.1	100.0
	모름/무응답	35.6	0.0	<b>39.5</b>	2.3	0.0	23.1	100.0
정치적 견해별	진보적	30.0	1.7	<b>57.2</b>	10.2	0.0	0.9	100.0
	중도적	36.3	2.1	<b>52.7</b>	6.4	0.0	2.5	100.0
	보수적	41.6	1.9	<b>48.7</b>	6.0	0.0	1.8	100.0
	모름/무응답	39.2	1.1	<b>40.2</b>	4.1	1.6	13.9	100.0

(표에서 기울임체와 고딕체는 필자가 표시한 것임.)

<표 1>에서 4·19는 1960년 4.19혁명을, 10·18은 1979년 부마항쟁을, 5·18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6·10은 1987년 6.10민주항쟁을 가리킨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

이 “00님께서는 민주화 운동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그 응답의 결과가 <표1>이다.

부마항쟁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별 인지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44.5%’로 지역민의 절반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연령별 인지도에서는 ‘50대’의 인지도가 ‘3.4%’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가 2008년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부마항쟁 당시 ‘50대’는 ‘29세’이며, ‘29세 이하’는 출생하지 않은 나이다. 부마항쟁은 그 당시에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부마항쟁은 국민들에게 결코 기억되지 않는, 잊혀질 사건이 될 것이다.

셋째, 학력별 인지도에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0.4%’ 더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없다. 부마항쟁의 인지도 자체가 민주화운동 가운데 겨우 ‘3.8%’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주화 수준별과 정치적 견해별의 인지도에서도 부마항쟁의 인지도는 ‘5%’ 내외로 극히 낮다.

따라서 부마항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모든 측면에서 민주화운동 가운데 가장 낮다. 국민들 대부분이 부마항쟁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마항쟁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표2>가 그것을 증명한다. <표2>는 “00님께서는 1979년 부마항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 1979년 부마민주항쟁 인지도>

		많이 들어 보았다	몇 번 들어 본 정도이다	모른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합계 (%)
지역별	서울	39.1	35.0	25.9	100.0
	경기/인천	42.0	37.2	20.8	100.0
	강원	48.7	31.9	19.4	100.0
	대전/충청	44.8	26.2	<b>29.0</b>	100.0
	대구/경북	38.8	39.0	22.2	100.0
	부산/울산/경남	<b>55.7</b>	33.1	11.2	100.0
	광주/전라	43.8	32.5	23.7	100.0
	제주	30.0	<b>50.0</b>	20.0	100.0
연령별	29세 이하	26.9	<b>41.4</b>	<b>31.7</b>	100.0
	30대	31.1	41.2	27.7	100.0
	40대	54.5	33.2	12.3	100.0
	50대	53.2	30.9	15.9	100.0
	60세 이상	<b>62.5</b>	20.2	17.3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45.4	32.4	22.3	100.0
	대졸 이상	42.4	<b>36.8</b>	20.8	100.0
	무응답	<b>56.2</b>	0.0	<b>43.8</b>	100.0
민주화 수준별	높은 수준	<b>48.4</b>	32.1	19.5	100.0
	중간 수준	42.9	<b>36.7</b>	20.5	100.0
	낮은 수준	43.6	33.2	23.2	100.0
	모름/무응답	28.3	33.6	<b>39.1</b>	100.0
정치적 견해별	진보적	41.1	<b>40.1</b>	18.9	100.0
	중도적	<b>46.7</b>	31.8	21.5	100.0
	보수적	45.0	34.9	20.1	100.0
	모름/무응답	35.3	23.7	<b>41.1</b>	100.0

(표에서 고딕체는 필자가 표시한 것임.)

<표 2>에 나타난 부마항쟁에 대한 인지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마항쟁의 발생 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절

반이 조금 넘게 ‘많이 들어 봤지만’,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약 30% 정도가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모르고 있다.

둘째, 연령별에서는 <표1>에서 부마항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29세 이하’가 많게든 적게든 ‘들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68.3%’,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31.7%’가 된다. <표 1>과 <표2>의 이러한 차이는 ‘29세 이하’는 부마항쟁에 관한 사건을 들어 본 약 70% 정도가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부마항쟁은 그 당시 출생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별, 연령별과 달리 학력별, 민주화 수준별, 정치적 견해별에서는 ‘부마항쟁’을 ‘많이 들어 본’ 경우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모름/무응답’이 과반을 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마항쟁에 관해서 그 발생 지역민을 제외하고 국민들은 ‘30%’에서 ‘50%’ 정도는 ‘들어 본 적’이 있지만 ‘20%’에서 ‘40%’는 들어 본 적 자체가 없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표 1>과 <표 2>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은 당시 발생지역과 지역민에게도 절반 정도 인식하고 그 항쟁의 전승이 이루어질 뿐, 전체 국민들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항쟁이다. 특히 항쟁의 발생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부마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부마항쟁은 발생 당시 지역민들의 절반 정도, 당시 20, 30, 40대의 85% 내외가 많게든 적게든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이다.

### Ⅲ.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 1. 분노의 이념과 기념시

부마항쟁이 발생 당시 20, 30, 40대의 85% 내외가 많게든 적게든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문학적 수용은 항쟁의 참여 경험이 있는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지역문화예술가들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인 임수생은 부마항쟁의 문학적 수용에 있어서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부마항쟁 당시 언론사 기자로서 체험한 바를 시 작품<sup>13)</sup>으로 형상화 하고 아울러 「증언」도 하고 있다.

- ① 취재 출동을 막기 위해  
모든 문을 폐쇄해버린  
신문사의 3층 편집국.  
기자들은 대형 유리창을 통해  
가시권 안의 시위를 보고 있었다.  
침울하면서도 흥분된  
기자들의 동태.  
그들은 시위를 보고 있었을까.  
그들은 진압을 보고 있었을까.  
기자들은 혁명을 보고 있었을까.  
기자들은 역사를 보고 있었을까.  
기자들은 말없이  
눈빛만 빛내고 있었다.

---

13) 본문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시편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시집에 수록된 작품이며, 논술의 편의상 인용 작품은 각주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임수생, 1994, 『혁명철학』 도서출판 빛남.

~ <우리들의 역사>의 제 38~50행

②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경 국제신문사 3층 편집국 (……) 이 때 신문사 편집국 안에 문제가 생겼다. 일부 취재 기자들과 내근 기자들이 현장으로 내다를 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신문사의 고위층으로부터 금족령이 내렸다. 취재봉쇄령이었다. 이와 동시에 출입구가 모두 잠겨버렸다. 편집국 기자들은 독안에 든 쥐 꼴이 되어 버렸다. 역사적 순간을, 바로 신문사 근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기자들은 갇힌 편집국 안에서 대형 유리창을 통하여 취재를 해야만 하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다.<sup>14)</sup>

<우리들의 역사>의 의미단락은 '학생들의 시위→ 신문사 기자들의 동태→ 학생들의 시위와 진압군에 의한 학생들의 참사→ 시위의 의의'로 되어 있다. 「증언」의 의미단락은 '학생들의 시위→ 신문사 기자들의 동태→ 기자인 나의 시위 참여 경험→ 시위의 의의'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역사>와 「증언」은 '학생들의 항쟁→ 신문사 기자들의 동태→ 항쟁의 참사→ 항쟁의 의미'라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인용 ①과 ②는 '취재봉쇄령으로 편집국에 갇혀서 학생들의 항쟁을 지켜보고 있는 신문사 기자들의 모습'이다. 곧 당시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로서 경험한 부마항쟁의 체험이다. 그 체험을 ①과 ②에서와 같이 당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①의 창작 연도가 6월 항쟁의 해이기도 한 1987년<sup>15)</sup>이고

14)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52쪽.

15) ①은 그 말미에 부기된 창작 연도 <'87.9.8 화>를 보면 1987년에 창작된 작품이며, 1994년 『혁명철학』의 시집에 수록됨으로써 발표된다. ②는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1989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들의 역사>는 『혁명철학』의 제 1부 <조국의 이름은 무엇인가>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시집 『혁명철학』의 “1부와 2부 그리고 3부는 88년도에 펴낸 시

여전히 제 5공화국의 군부 독재체제임을 감안한다면 부마항쟁의 시적 형상화는 항쟁 그 자체의 사실적 재현을 우선으로 한다.

부마항쟁의 사실적 재현은, 제 5공화국의 군부 독재체제에서 제 6공화국의 민주적 헌정체제로 바뀐 그 10주년에 이르러서는 분노의 이념으로 형상화 된다.

민중이여  
깨어 있는 대중이여  
군의 부당한 정치개입을 타도하자.  
민중의 가슴을 향해 총구를 겨눈  
맨손의 민중  
맨손의 형제 가슴에 총탄을 퍼부은  
군의 횡포는  
민중사를 핏빛으로 장식할 뿐  
민주주의를 저 멀리로 후퇴시킨다.  
타오는 횃불은 민중의 힘이다.  
민중의 힘은 횃불이 될 때 폭발한다.  
민중은 민중의 삶이  
절대 권력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의 해방을 위해  
항쟁의 횃불에 불을 당긴다.  
혁명이여  
혁명정신이여  
~<거대한 불꽃 부마민중항쟁>

---

집 『절실함은 무엇인가』 이후 쓴 작품들이다” 라고 스스로 밝혀놓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역사>의 창작 연도는 1987년이며 발표 연도는 1994년이다.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의 서시로 발표된 인용 시편은 ‘1, 2’로 되어 있다. 인용 시편은 부마항쟁과 그 참여자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사실 재현은 사라지고 항쟁을 진압한 군부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는다. 인용의 시편에서 부마항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약호로 ‘민중/군부’의 준거들이 작동한다. ‘민중/군부’는 ‘깨어 있음/부당함, 맨손/총탄, 맨손/황포, 민주주의/반민주주의, 민중의 힘/절대권력, 고통/(억압), 자유로움/(반자유로움), 혁명/(절대권력), 혁명정신/(절대권력)’ 등을 계열화 하고 있다. 이러한 계열관계 속에서 ‘민중’의 분노의 이념소<sup>16)</sup>가 작동하여 ‘군부’를 ‘혁명과 혁명정신’에 반하는 ‘절대권력’으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정치화 한다. ‘민중’의 도덕적 가치에 준거하여 ‘군부’의 ‘절대권력’을 반도덕적 가치화함으로써 분노는 ‘타도’의 이념에 이른다. 부마항쟁은 혁명과 ‘타도’의 이념으로 형상화 된다. 이러한 시적 형상화에는 사실적 재현이 선동적 관념, 관념적인 선동이 자리 잡는다.

인용 시편에서부터 선동적인 관념시, 관념적인 선동시가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행사시, 부마항쟁의 주기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시가 된다.

①

형제여, 우리는 우리들의 얼을 살려야 한다.  
정치가 붕괴시킨  
권력이 난도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조국으로 이어야 한다

16) F.Jameson,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ness, Corneell University Press, 9쪽.

눈빛 고운 우리 형제여  
마음씨 따스한 우리 형제여  
절박한 고통 넘고 넘어  
산빛도 물빛도 들빛도 같은  
우리는 같은 핏줄, 같은 형제  
우리는 다같은  
우리는 다같은 조국의 형제  
~ <우리는 다같은 형제>

②

철학도, 역사도  
모두 황폐화시켜버린 그들 족속들과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는 우리들.  
탁월한 요령을 가진 그들 무리와  
우리들은 우리들 시대의  
역사와 철학과  
삶을 되찾기 위해  
오, 우리들  
우리들은 이렇게 뒤섞여  
뒤죽박죽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다운 삶이 절실한  
우리들 시대의 철저한 파괴여  
파괴의 질북은 깃발이여.  
~ <우리들은 살고 있다>

①은 14주년 기념시의 끝 부분이며 ②는 15주년 기념시의 끝 부분이다. ①의 시편에서는 ‘우리/정치모리배’를, ②의 시편에서는 ‘우리/소시민’을 다루고 있다. ①과 ②의 ‘우리’는 ‘같은 핏

줄, 같은 형제'이다. ①에서 '정치모리배'는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 지역의 창조적 특수성을/ 악의 가득 찬 지역패권주의로/ 구시대의 색깔론으로/ 갈가리 찢어버린' 모리배라면, ②에서 '소시민'은 '우리들 혁명대열에 동반하지도 않았던/ 화투장에만 눈이 멀었던/ 그들'이다. ①과 ②의 인용 부분은 결말 부분이다. 결말 부분<sup>17)</sup>이 특히 기념시나 행사시에서 그 참여자들의 소망을 기원하는 부분이라면 인용의 ①과 ②는 '우리'의 기원을, 곧 '우리'는 '다같은 형제, 같은 핏줄'로서 '사람다운 삶이 절실함'을 기원하고 있다. 인용 시편 ①과 ②에서 부마항쟁은 사라지고 그것의 기념 행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 기념시는 부마항쟁과 그 '혁명정신'을 기념하고 현재화 하는 실체가 없고 추상적인 어떤 정신으로 표현된다. 텍스트에서와 같이 부마항쟁의 시적 형상화는 혁명정신이라는 추상적인 정신의 선동적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 2. 사실적 재현과 의식결정론

부마항쟁은 부산지역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에피소드<sup>18)</sup>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소설가 이규정<sup>19)</sup>의 <멀고도 먼 길>에서는 작품의 지배적인 모티브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설 <멀고도 먼 길>은 소

17) F.Kermode, 2000, The Sense of an E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32~35쪽.

18) 부마항쟁을 에피소드로 다루는 것은 부산지역 작가들에게는 1990년 이후에 가능했다. 황석영의 <장길산>에서는 부마항쟁을 역사적 현실의 비유로 다루고 있다. 그가 <장길산>을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중에 부마항쟁이 발발하자 이에 맞춰 '난민들이 세곡창을 터는 에피소드'를 비유적으로 그렸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다.

19) 부마항쟁 당시 이규정은 동명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08년에서 2년간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지낸다.

설집 『멀고도 먼 길』의 표제작으로서 작품의 가장 중심적인 모티브가 부마항쟁인 바, 그 줄거리의 의미단락은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① 조용술은 3.1만세에 참여하고 신간회 동경지회, 건국준비위원회에 관계하다가 이북에서 높은 관리로 있다.

② 조용술의 처는 남편의 현 상황을 전해 듣고는 집을 떠난다.

③ 조흥제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연좌제가 철폐될 때 대학교수가 되지만 유신반대 운동으로 해직교수가 된다.

④ 조갑래는 해직교수 아버지를 보면서 군사정권에 대한 원한과 증오로 부마항쟁의 중심에 선다.

⑤ 조갑래가 강제 입대되어 의문사를 당하자 조흥제는 관찰자 태도를 지닌 것을 후회한다.

⑥ 조을래는 갑래와 같은 운동권의 길을 걷다가 병역을 마치고 복학한다.

⑦ 조을래는 부모의 반대에도 독일로 유학 가서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사업을 한다.

⑧ 조흥제는, 아내가 지병으로 죽자 혼자 산다.

⑨ 조흥제는 독일에서 을래를 만나 자기가 죽으면 화장을 하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진다.

줄거리의 의미단락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면서 작품을 지배하는 모티프는 ④이다. ④에서 작가는 조흥제의 시선으로 조갑래를 바라본다. 해직교수이자 아버지의 시선으로 항쟁의 중심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본다. 아버지의 바라봄은 아들의 행위와 함께 그것을 현실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식까지도 읽어낸다.

조흥제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본 아들의 행위를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한다.

조흥제는 그즈음 갑래에게 위험한 시위에 앞장서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갑래의 방에서 연일 벌어지는 모의(?)에 대하여,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어떤 세균을 배양하면서 이를 관찰하는 시선으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가만히 지켜본 게 아니고 회심의 미소까지 머금고 아들과 그 ‘동지’들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투쟁 선언문’을 본 다음날, 갑래가 학교로 가고 난 뒤 흥제는 갑래의 방에서 또 다른 문건을 발견했다.

1. 유신헌법 철폐
2. 안정성장 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3. 학원사찰 중지
4. 학도호국단 폐지
5. 언론 집회 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6. YH사건에서오 같은 반윤리적 기업 엄단
7. 전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단

인용의 전과 후에는 부마항쟁을 촉발한 <민주투쟁선언문>과 <선언문>을 그대로 재현한다. 서술자의 이러한 객관적인 태도는 부마항쟁의 사실적 재현을 가능하게 한다. ④에서 그 사실적 재현은 부마항쟁이라는 사건에는 유효했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시선에는 그 효용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아버지의 시선은 부마항쟁과 그 주동세력인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 재현의 태도를 가지지만 아들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군사정권에 대한 원한과 증오’와 같이 주관적 의식으로 표현한다. ⑤에서 갑래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아버지의 시선은 아버지로서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조흥제는 끝내 아내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큰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는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큰 아들의 반정부시위를 침묵으로 교사한 게 자신이란 생각을 끝내 떨칠 수가 없었다. 물론 자신을 대학에서 몰아낸 군사정권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큰아들로 하여금 그런 시위를 하도록 방임했던 것이다.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지금도 그는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해직되어 집에서 놀고 있던 아버지를 보면서 이를 악물곤 하던 큰아들 갑래는 부마민주항쟁이 터지기 전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군사독재를 쓸어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인용에서 아들 갑래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 흥제의 시선은 사실의 객관적 재현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나 의식의 토로에 닿아있다. 갑래가 부마항쟁의 중심에 선 원인을, 조흥제는 ‘해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한, 증오’ 그리고 자신의 ‘침묵에 의한 교사’에 두고 있다. 조흥제는, ‘아들의 죽음이란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아버지 탓’에만 두고 있다. 조흥제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한’에 몰입되어 그 죽음을 일어나게 한 상황이나 조건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 부마항쟁의 중심에 선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방임과 교사’라는 것은 그 객관적 상황이나 조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곧 부마항쟁이나 그 주도세력의 죽음을 그것 자체의 현실적 객관적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읽어 내고 있다. 텍스트는 부마항쟁과 그 주도세력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항쟁과 주도세력의 행위를 촉발하게 한 그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을 형상화 하지 못하

고 있다. 텍스트에서와 같이 자아와 세계 혹은 개인과 사회 간의 대결에서 자아,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에 의해서 세계 혹은 사회가 결정된다는 것이 심리적 결정론 혹은 주관적 의식결정론<sup>20)</sup>이다. 심리적 결정론이나 의식결정론의 시각에서 있는 텍스트에서 ‘원한과 증오’의 대상인 ‘군사정권’에 대한 인물들의 투쟁은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 있는 조용술, 조홍제, 조갑래 및 을래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싸우지만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텍스트에서는 단지 그 3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의 억압과 이로 인한 피해 속에 있다는 표현을 제시할 뿐 그 과정이나 과정 속에서의 대항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서와 같이 부마항쟁의 서사적 형상화는 그 객관적 사실의 표층적 재현에 머물러 있을 뿐<sup>21)</sup>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의 의미를 드러

20) P.P.Wiener, 1979,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Charles Scribner's Sons, Vol.2~25a, 26b, 237a.

21) 이에 관련하여 이규정은 2006년에 발표된 소설 <멀고도 먼 길>이 1977년 등단 이후 ‘비슷한 내용의 소설’을 『월간 문학』에 발표하려다가 ‘검열’에 걸려서 발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쓴 많은 작품 중 유일하게 영원히 잃고 만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검열’에 걸린 작품의 내용도 <멀고도 먼 길>과 내용이 비슷한 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대학으로부터 해직된 중년 사내로 할 일이라고는 없다. 그래서 지극히 어려운 시절을 매일 술로 보내고 있고, 아내가 파출부 노릇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간다. 아들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대학생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운동권에 들어 시위에 앞장서다가 그만 강제 입대되고 만다. 그런데 어느 날 군부대로부터 이 아들이 자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받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들이 절대로 자살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달파도 자살 같은 것을 할 못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의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주인공은 더욱 술로써 울분을 달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쓰러져 버린다는 내용의 단편이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썼던 작품인데,

내지 못하고 있다.

### 3. 상황의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

부마항쟁은 당시 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희곡작품으로도 전혀 형상화 되지 못한다. 부마항쟁이 시로서 형상화 되는 시기가 그 발발시점에서 10년을 지났듯이, 소설로서 형상화 되는 시기가 20년을 지났듯이, 희곡으로 형상화 되어서 공연으로 이어진 것도 20주년에 가능해진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마항쟁은 희곡 문학적 형상화보다 연극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 대본이 남겨진다.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의 <부마항쟁 20주년 상황재현극>은, 그 제목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듯이, 부마항쟁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공연이며, 그 결과로 남겨진 대본이다.

먼저 대본텍스트를 줄거리마디<sup>22)</sup>에 따라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장면 1 ~ 박정희와 JP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유신만세를 부르고, JP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한다.
- ② 장면 1 ~ 김상진이 칼로 자결을 하면서 박정희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낭독하고 동지들에게 유신반대운동을 선동한다.
- ③ 장면 2 ~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간 수출탑 싸는 과정

---

그게 당국의 눈 앞에는 가시 같았던 모양이다.

당시 ‘검열’에 걸렸던 작품이나 <멀고도 먼 길>은 ‘실제로 당시에는 비밀비재’한 ‘일’에 속한다. 그런 일상적인 일을 ‘일상’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사실의 표층적 재현이라고 할만하다.

이규정, 2009, 『우리들의 가면무도회』, 도서출판 푸른 별, 272~273쪽.

22) 극이나 곳의 대본을 등퇴장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가 아니라 줄거리마디를 단위로 하여 요약하는 것은 줄거리의 의미구조를 그 구조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M.Pfister, 1982, Das Drama, Wihelm Fink Verlag, 361쪽.

- ④ 장면 2 ~ 아나운서의 100억불 수출 달성 쾌거 멘트와 5쌍의 자본가들이 모형 수출탑을 싸는 과정
- ⑤ 장면 2 ~ 동일 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탄압 구호와 땀물을 뒤집어 쓰는 형상 발언
- ⑥ 장면 3 ~ YH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과 어린 여공들의 노래 '야근' 및 김경숙의 '공장의 불빛' 노래
- ⑦ 장면 3 ~ YS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발언과 비서의 격려사
- ⑧ 상황 1 ~ 학생들의 집단무 및 합창과 정광의 민주투쟁선언문 낭독 및 대열의 진군, 이완
- ⑨ 상황 1 ~ 김영의 '부영극장 앞에서 만납시다'라는 발언
- ⑩ 상황 2 ~ 선원과 시민 10이 술자리에 나와서 시위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시위대에 합류하다.
- ⑪ 상황 2 ~ 시위대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정광, 김정, 시위자들의 구호와 관객 시민들에게 시위 동참 요구
- ⑫ 상황 2 ~ 시위대의 파출소 투석과 불태우고 부르는 합창
- ⑬ 상황 2 ~ 전경의 기습과 시위자, 선원 연행과 시위대의 관공서, 언론사, 파출소 불태움
- ⑭ 상황 2 ~ 이준마들이 등장하여 자식의 시위 참여, 시위대와 경찰 간의 싸움, 시위자 및 선원의 경찰 연행 등을 이야기 하다가 선원 아내의 '아내의 노래'
- ⑮ 상황 3 ~ 시위대가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알리지만 계속 시위를 하자, 군경들의 살벌한 곤봉으로 진압하다.
- ⑯ 상황 4 ~ 박종규 의원, CIA장, 경찰국장, 도교육감, 시장, 경찰서장, 사단장 등의 비상회의와 군인들의 착검과 위협
- ⑰ 상황 4 ~ 선원 아내의 산고 고통
- ⑱ 선원 부부가 등장하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 한다.

⑬ 선원 부부, 국밥집 아줌마, 그 아들, 딸, 사위, 손녀, 할머니가 등장하여 민주항쟁의 주역이었음을 이야기 하다.

요약한 줄거리마디를 대본텍스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명칭	구 조 내 용	시공간	범위
민주 대합창	대합창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 ‘시월에 서서’	중앙무대	
프롤로그	‘진혼곡’ 독창 대합창 ‘전태일을 아너 너’	보조무대	
첫째 마당	장면 1, 2, 3, 4	1975년의 시점	①~⑦
둘째 마당	상황 1, 2, 3, 4		⑧~⑰
셋째 마당	선원부부+국밥집 아줌마 가족들	1999년의 시점	⑱~⑲
에필로그	대합창 ‘시월에 서서’ ‘선언 2’의 선언		

대본텍스트의 구조는 ‘대합창+프롤로그+첫째, 둘째, 셋째 마당+에필로그’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주 대합창,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세 마당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세 마당은 텍스트의 지배적인 사건과 구조의지<sup>23)</sup>를 담는 것이다.

‘민주 대합창’은 노동자복을 입은 출연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과 <시월에 서서>를 합창한다. 운동권 가요<sup>24)</sup>로 널리 알려

23) 구조의지란 텍스트의 구조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힘 혹은 의식 그 자체를 뜻한다. 문학텍스트에서 구조 형식은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나 이념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W.Kaysner, 1982, Das sprachliche Kunstwerk(『언어예술작품론』, 김윤섭 역) 대방출판사, 261쪽.

24) 본고에서는 민중가요, 혹은 운동권 가요에 관해서 다음 저서에 힘입은 바 크다.

진 것과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린 노래이며, <시월에 서서>는 부마항쟁을 기린 노래이다. '민주 대합창'을 시작으로 한 것은 텍스트의 구조의지가 민중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앞으로 형상화 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프롤로그'에서는 '노동자복'을 입은 출연자들의 전태일의 분신 상황을 형상화 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는 것이다. 전태일이 분신하는 상황, 곧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책을 화형하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하는 과정에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하는 상황<sup>25)</sup>이다. 이러한 '프롤로그<sup>26)</sup>'는 텍스트에서 앞으로 전개될 극적 구조와 상황이 전태일의 분신 상황과 같거나 유사한 상황임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 대합창, 프롤로그'에서 형상화 한 민중에 의한 민주화 운동 혹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운동이 텍스트의 지배적인 구조와 상황이 됨을 가리키고 있다. 텍스트의 세 마당도 역시 민주화 운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세 마당에서, 첫째 마당은 1975년의 시점, 둘째 마당은 1979년의 시점, 셋째 마당은 199년의 시점이다.

첫째 마당은 1975년의 시점에서 1979년 부마항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곧 김상진의 자결과 긴급조치 9호에서부터 김경숙의 추락사까지를 형상화 하고 있다. 김상진의 자결은 1975년 4월 11일 서울농대생 김상진이 유신헌법과 박정희 독재

정경은, 2008, 『한국 현대 민중가요사』 서정시학사.

25) 전태일의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할 것.

조영래, 1983, 『전태일 평전』 돌베개.

26) 프롤로그는 원래 줄거리 밖에 있는, 줄거리와 분리되어 있는 머리말로서 줄거리와 극적 상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민병욱, 2006, 『현대희곡론』 삼영사, 144~145쪽.

의 허위를 고발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활복 자결한 사건이다.<sup>27)</sup>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유신 헌법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면서 민주 운동과 반정부 활동을 탄압한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다. 텍스트는 사건 전체나 그 과정을 형상화 하는 것을 다음의 지문으로 간략하게 서술만 한다.

#### 긴급조치 9호

유신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 선전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무대 한 편에 스포트 라이트.

김상진 칼을 들고 배를 가르다. 칼이 떨어지며 칼을 썬 형견이 바람에 날린다.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낭독(다음 글 ~ 배우들이 상황에 맞추어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인용에서와 같이 김상진의 자결 사건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과 ‘들어라 동지여!’를 무대에서 낭독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장면(①, ②)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1979년 8월 11일 YH사건으로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추락사도 텍스트에서 ‘김경숙 편지글 (부모님 전 상서) 낭독’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 장면(⑥, ⑦)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마당의 사건들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익숙한 부마항쟁의 원인이 된 사건들 그 자체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의 장면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첫째 마당은

---

27) <http://www.kimsangjin.net/>

부마항쟁의 원인이 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형상화 하여 장면화 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마당의 장면들, ①에서 ⑦까지의 장면들은 서로 간에 구조적, 상황적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면 ①에서 김상진의 자결 사건(1975.4.11)과 긴급조치 9호의 발표(1975.5.13)는 하나의 장면 속에서도 서로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할되고 나열된 에피소드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마당은 1979년 부마항쟁의 발발에서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텍스트는 부마항쟁의 과정을 주도적인 사건으로 다루되, 시위참여자 선원과 그 아내의 산고를 보조적인 사건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부마항쟁 과정의 형상화에서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대로 재현하려고 한다. 항쟁을 촉발시킨 <민주투쟁선언문>을 그대로 텍스트의 지문으로 기록하고, 그 낭독자 정광민을 등장인물<sup>28)</sup> 정광으로 명명한다. 이러한 당시 현실적 상황을 사실로서 재현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사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시위자** 저기 파출소가 있다.

**시위자1** 저 독재의 악령 파출소를 부수자

**다같이** 부수자

파출소에 투석하는 시위대

전경들이 시위대를 막으며 등장하여 격전을 치른다.

전경들이 후퇴하면서 파출소를 불태우는 시위대.(………)

타는 불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하여 ‘시위대의 합창’을 부른다.(………)

---

28) 부산대학 교정에서 시작된 시위가 부산시 중심지에서 항쟁화 될 때 그 집결지 ‘6시 부영극장 앞에서 만남시다’라고 발언한 등장인물을 김정이라고 명명한 것도 소설가 김영(필명 김하기)을 연상하게 한다.

전경이 기습을 하여 시위자들을 연행한다. 연행하는 과정에 여  
기 저기 비명소리.

전 경 저 새끼들 다 잡아. 다 죽여.

시민들 이놈들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

대학생 놈 이 새끼야

전 경 이 새끼 되질려고………

인용은 항쟁과정에서 시위대가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전경들  
과 싸우는 장면이다. 당시 파출소에 불을 지른 사실은 시위참여  
를 증언한 시위자들이 모든 증언에 일치한다. 예컨대 소설가 김  
하기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사거리로 나와서는 그 바로 모서리에 있던 파출소를 보자  
“파출소 불지르자!”라는 소리가 나오고 곧 이어 예닐곱의 청  
장년들이 각목을 들고 파출소에 들어가 집기를 깨부수고 밖에  
서는 한 명이 경찰 사이카 기름통을 열고 뒤집어 놓고 불을 붙  
였어요.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자 모두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  
치다가 어깨동무하고서……… 보수동 파출소, 부평 파출소 등  
서구에 있던 각종 관공서 등에 투석 혹은 파괴를 했습니다.<sup>29)</sup>

텍스트에서 인용한 부분과 시위차여자의 증언은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더구나 텍스트는 그 부분을 지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텍스트가 당시 현실적 상황을 재현하려고 한 것이며, 그  
재현을 극적 대사가 아니라 극의 서사적 요소인 지문으로 재현  
을 하고 있다. 둘째 마당에서는 텍스트의 지배적 사건인 부마항

---

29)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앞의 책』 부마민주항쟁십주년 기념사업회, 65쪽.

쟁을 주도적인 사건으로 설정하여 당시 현실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주도적인 사건의 사실적 재현과 달리, 둘째 마당의 보조적인 사건 시위참여자 선원과 그 아내의 산고는 극적 행동으로 형상화 된다.

새 맥 우리 그 사람이 친구 잠깐 만나고 온다면서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예.

아줌마1 널 모레 출항한다고 선창에 갔겠제

새 맥 아이라예. 거도 가 봤는데 아침에 들르고는 코빠기도  
못 봤다 하던데예.

(...중략...)

아줌마3 너거 서방 아까 보이 경찰들 하고 씨게 한 판 붙던데...

(...중략...)

새 맥 (발을 동동 구르며) 내 그랄 줄 알았어예. 성격이 하  
도 욱 하는 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조마조마 했는데

아줌마2 그라문 야 서방이 잡히갔단 말이가.

아줌마3 잡힌게 아니고 경찰이 대학생을 마 술개 병아리 채  
가듯이 낚아 채 가는 거를 야 서방이 보고 구해 널 끼라고 같  
이 달라 들어서 앞치락뒤치락 하는 거만 보고 내도 새빠지게  
도망온다고 바빠서...

텍스트에서 항쟁과정에 시위에 참여하거나 구경하고 있는 아  
줌마 세 사람이 등장한다. 아줌마 1은 '마산에서 노동자로 일하  
는 아들과 국밥집 일을 도와주는 딸이 있는' 국밥집 아줌마, 아  
줌마 2는 '대학생 아들을 둔' 노점상 아줌마, 아줌마 3은 '시위대  
를 쫓아 다니는' 자갈치 고기장사 아줌마이다. 아줌마 세 사람과

함께 선원 부부는 부마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극적 사건을 만들어 간다. 아줌마1의 딸은 배달을 나갔다가 항쟁을 구경하고 돌아오며, 그 딸과 함께 있던 아줌마2의 아들 철수는 시위를 구경하다가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원은 친구와 술 자리를 하다가 시위에 참가하게 된다. 선원의 시위참가는 항쟁을 구경하던 일반 시민들의 참여이며, 항쟁이 학생들의 시위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투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 계기에 선원의 시위 참여가 이루어지고 새택이 걱정을 하게 된다. 그 걱정은 둘째 마당의 끝 부분에서 군경에 의해서 시위대가 해산하자 새택은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글자 그대로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산모의 고통<sup>30)</sup>'은 생명의 생산이다. 군경에 의하여 시민들의 민주 항쟁이 일단 억압받고 저지 당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듯이 민주 항쟁의 부활이 다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조적인 사건은 역사적 현실 상황을 극적 열정<sup>31)</sup>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둘째 마당은, 그 주도적인 사건과 보조적인 사건에서 본다면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을 형상화 하고 있다.

셋째 마당은, 둘째 마당에서 극적 열정으로 형상화 된 등장인물들이 1999년 민주항쟁기념관에서 항쟁의 주역이었음을 다루고 있다.

사 위 그러니까 형님이야말로 우리 부마 민주항쟁의 진짜 이  
거지예(엄지 손가락을 세우며)

30) J.E.Cirlot, 1962, A Dictionary of Symbols, Philosophical Library, 356쪽.

31) 이런 의미에서 둘째 마당의 보조적인 사건은 창작주체가 그 사건에 도취하여 재현한 것이다. H.자이틀러는 극의 본질을 극작가의 도취적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하면서, 극적 열정을 서정적 내성, 서사적 관찰, 교훈적 관조와 구별한다. 폴 헤르나디, 1983, 『장르론』(김준오 역) 도서출판 문장, 53쪽.

선 원 그 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제. 사람 보는 눈도 많이 바뀌고(패기만만, 약간 급하게 대사)

인용에서와 같이 셋째 마당은 '1999년 10월 16일 현재의 시점'에서 선원 부부와 국밥집 아줌마 가족들이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을 구경하면서 '부마항쟁'의 주역이 지역 시민들이었음을, 그 항쟁 이후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 마당의 연결 관계에서 본다면 텍스트의 지배적인 사건은 부마항쟁이며, 구조의지는 그 항쟁이 민주화 투쟁, 반정부 투쟁의 결과로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 정신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마항쟁 정신의 계승은 에필로그에서 더욱더 강화된다. 에필로그<sup>32)</sup>가 작품의 기본 의도, 주제를 요약하면서 막이 내림을 알려 주듯이, 텍스트의 에필로그에서도 모든 출연자들이 등장하여 '시월에 서서'를 합창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금 흘린 이 피 한방울이 아름답게 피리라  
참 자유 세상 참 평등 세상 끝내 건설하리라  
참 정의 세상 참 평화 세상 우리 건설하리라

지금까지 살펴 본 바, 텍스트는 부마항쟁을 지배적인 사건으로, 그 항쟁이 민주화 투쟁, 반정부 투쟁의 결과로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 정신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조의지로 하고 있다. 아울러 텍스트는 이러한 지배적인 사건과 구조의지를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

32) T.Hodgson, 1988, The Batsford Dictionary of Drama, B.T.Batsford Press, 123쪽.

문제는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이 부마항쟁에 관한 시민들의 증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극적 열정도 '선언'의 차원에 있어서 텍스트는 극적 행동이나 상황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 4. 문학사회학적 수용의 한계

부마항쟁의 문학적 수용보다 선행된 것은 그것에 관한 '증언'이다. 그 '증언'은 당시 현실상황과 그 속에서 전개된 항쟁의 과정에 사실적 보고 및 반영이다. 그 '증언'은 1988년 10월 16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sup>33)</sup>에 의해서 시작되고 1989년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부산 편> 17명, <마산 편>의 15명의 '증언'이 수록된다. 1979년 부마항쟁에서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증언'이 이루어진다. 그 '증언'은 그러나 르뽀문학이나 증언문학으로 전혀 형상화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부마항쟁이 10년이 지나서야 시로, 소설로, 희곡(연극)으로 형상될 뿐이다.

1979년에서 1989년 사이 부마항쟁은 언론매체(한겨레신문)에서, 문학예술인들에게도 전혀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 사이 민주화 운동에서 본다면 1987년 6월 항쟁이 놓여 있고, 그 투쟁 대상인 제 5공화국이 놓여 있다. 1987년 6월 항쟁이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써 민주적 헌정체제를 가져 왔다면, 제 5공화국은 그러한 헌정체제를 억압하고 탄압한 군부 독재체제이다. 민주화 운동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은 그 시작이지만, 제 5공화국에서 본다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탄압, 억압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때문

33) 한겨레 신문은 1988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마 항쟁에 관하여 연속 기획 기사로 보도한다. 부마 항쟁에 관한 사실적 보도는 이 때부터 시작된다.

인지 문학예술인들에게 부마항쟁은 선택되지 않는다. 1979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문학예술인들의 침묵은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저항문학은 문학적 예언 단계, 문학적 참여 단계, 문학적 기념 단계를 거친다. 부마항쟁을 예언하거나, 직접 참여하면서 형상화 하는 문학예술작품이 부산지역에는 없다. 더구나 부마항쟁의 과정이나 참여 체험을 사실적으로 보고한 보고문학 혹은 르포르타주(reportage)도 없다. 그 10주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마항쟁을 형상화 하는 문학작품들이 창작, 생산된다. 그 창작, 생산의 출발은 시문학에서 소설문학을 거쳐서 연극 공연이나 극 공연으로 나아간다. 부마항쟁은, 시 장르에서는 분노의 이념으로, 소설 장르에서는 당시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으로, 공연 장르에서도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으로 형상화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부산지역 문학예술가들은 부마항쟁이 아니라 1987년 6월 항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부마항쟁은 질적, 양적으로 문학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는 단순히 기념문학의 대상이다. 기념문학은 부마항쟁 이후 그것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면서 정신을 계승하자는 행사용 문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은 그 한계를 가진다.

---

3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는 부마항쟁 문학작품집이 아니라 6월 항쟁 문학작품집 『6월의 노래』를 간행한 바 있다. 그 작품을 수록한 문인들 가운데 부마항쟁을 노래한 문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 IV. 결 론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를 살펴 본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부마항쟁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증언과 증언자들의 구성 및 증언내용에서 본다면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다.

2) 부마항쟁은 그 20주년인 1999년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서 ‘부·마항쟁’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얻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된다.

3) 부마항쟁은 당시 발생지역과 지역민에게도 절반 정도 인식하고 그 항쟁의 전승이 이루어질 뿐, 전체 국민들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항쟁이다. 특히 항쟁의 발생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부마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부마항쟁의 시적 형상화는 혁명정신이라는 추상적인 정신의 선동적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5) 부마항쟁의 서사적 형상화는 그 객관적 사실의 표층적 재현에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6) 부마항쟁의 극적 형상화는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에 머물러 있다.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이 부마항쟁에 관한 시민들의 증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극적 열정도 ‘선언’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극적 행동이나 상황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7) 부마항쟁은, 시 장르에서는 분노의 이념으로, 소설 장르에서는 당시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으로, 공연 장르에서도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으로 형상화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부마항쟁은 질적, 양적으로 문학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는 단순히 기념문학의 대상이다. 기념문학은 부마항쟁 이후 그것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면서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용 문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은 그 한계를 가진다.

### 【참고문헌】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97, 『유월의 노래』도서출판 유월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김 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Vol.29~No.2, 419~453쪽,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No.1, 83~103쪽, 21세기 정치학회.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병욱, 2006, 『현대희곡론』 144~145쪽, 삼영사.
- 민주공원, 2003, 『(민주공원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운동사』민주공원.
- 민주공원, 2003,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사료 목록집 : 2002~2004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 다시 가본 민

주화운동 역사의 현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표』.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십주년 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십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지역 6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 『한국의 민주화와 부산의 6월항쟁』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6, 『(자료로 본)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 유시춘 외, 2005, 『우리 강물이 되어 : 70.80 실록 민주화운동』 경향신문사.
- 이규정, 2006, 『멀고도 먼 길』 해성출판사.
- 이규정, 2009, 『우리들의 가면무도회』 272~273쪽, 도서출판 푸른 별.
- 임수생, 1994, 『혁명철학』 도서출판 빛남.
- 정경은, 2008, 『한국 현대 민중가요사』 서정시학사.
- 정주신, 2008, 「10·26 사건의 배경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18, 113~144쪽,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영래, 1983, 『전태일 평전』 돌베개.
- 조정관, 2009,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2~NO.19, 73~98쪽, 21세기정치학회.
- 차성환, 2008, 「부마항쟁참여자 및 목격자설문조사 보고서」 『부산민중의 삶과 정치의식』(부마민중항쟁 28주년 학술심포지움 총서), 151~195쪽,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차성환, 2008, 「부마항쟁참여자 및 목격자설문조사 보고서」, 『부산민중의 삶과 정치의식』151~195쪽,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차성환, 2009, 『참여 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F.Jameson,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ness*, 9쪽, Corneell University Press.
- F.Kermode, 2000, *The Sense of an Ending*, 32~35쪽, Oxford University Press.
- J.E.Cirlot, 1962, *A Dictionary of Symbols*, 356쪽, Philosophical Library.
- M.Pfister, 1982, *Das Drama*, 361쪽, Wihelm Fink Verlag.
- P.Hernadi, 1983, 『장르론』(김준오 역), 53쪽, 도서출판 문장.
- P.P.Wiener, 1979,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Charles Scribner's Sons, Vol.2~25a, 26b, 237a.
- T.Hodgson, 1988, *The Batsford Dictionary of Drama*, 123쪽, B.T.Batsford Press.
- W.Kayser, 1982, *Das sprachliche Kunstwerk*(『언어예술작품론』, 김운섭 역), 261쪽, 대방출판사.

투 고 일	심 사 일	심 사 완 료
2010. 11. 14	2010. 11. 30	2010. 12. 15

**【국문초록】**

본고는 임수생의 시집 『혁명철학』, 이규정의 소설 <멀고도 먼 길>, 부산민족문화협회의의 <부마항쟁 20주년 상황재현굿>을 대상

텍스트로 하여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를 살펴 보았다.

1) 부마항쟁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증언과 증언자들의 구성 및 증언내용에서 본다면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다.

2) 부마항쟁은 그 20주년인 1999년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서 ‘부·마항쟁’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얻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된다.

3) 부마항쟁은 당시 발생지역과 지역민에게도 절반 정도 인식하고 그 항쟁의 전승이 이루어질 뿐, 전체 국민들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항쟁이다. 특히 항쟁의 발생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부마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부마항쟁의 시적 형상화는 혁명정신이라는 추상적인 정신의 선동적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5) 부마항쟁의 서사적 형상화는 그 객관적 사실의 표층적 재현에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6) 부마항쟁의 극적 형상화는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에 머물러 있다. 역사적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이 부마항쟁에 관한 시민들의 증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극적 열정도 ‘선언’의 차원에 있어서 극적 행동이나 상황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7) 부마항쟁은, 시 장르에서는 분노의 이념으로, 소설 장르에서는 당시 현실 상황의 사실적 재현으로, 공연 장르에서도 사실적 재현과 극적 열정으로 형상화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부마항쟁은 질적, 양적으로 문학화 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현재에는 단순히 기념문학의 대상이다. 기념문학은 부마항쟁 이후 그것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면서 정신을 계승하자는 행사용 문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은 그 한계를 가진다.

**핵심주제어** : 부마항쟁, 민주화 투쟁, 기념문학, 시집 『혁명철학』, 소설 <멀고도 먼 길>, 공연 <부마항쟁 20주년 상황재현극>

**【Abstract】**

---

---

**A Study on the Sociology of Literary  
Reception and Problems  
about Busan~Masan Resistance**

Min, Byung Wook / Pusan National Univ.

---

---

This paper observed 『HyugMyung ChelHak』 of Im Soo Sang's poetical works, <Melgodo Men Gil> of Lee Kyu Jung's Short Story, <BuMaHangJang 20JuNuen SangHang JaeHyun Kus> of The Busan National Literature Association selected to grape for the Sociology of Literary Reception and Problems, summarizing what we have observed until now as follows.

1) Intems of the historical testimony and it's contents, many members of testifiers and their characterstics, Busan~Masan Resistance is pro~democratic struggle with University Students

as the central figure.

2) After twentie years, Busan~Masan Resistance is achieved BuMa HangJang by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stipulated BuMa Hang Jang to be active on the liberty and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

3) The BuMa Hang Jang don't transmi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e Korean People don'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BuMa Hang Jang. Especially The rescent generations don't realize the BuMa Hang Jang as democratic struggle.

4) The potical Figuration of the BuMa Hang Jang is limited the ideological propanda of revolutionary ideas

5) The fictional Figuration of the BuMa Hang Jang is limited the superficial representation of the historical facts, and can't establish the identity of contemporary ideas.

6) The dramatic figuration of the BuMa Hang Jang is limited the objective presentation of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can't reveal the implicature of contemporary ideas.

7) Until today, the BuMa Hang Jang isn't figured with the actual literaturary spot, is a memorial of a democratic event.

Finally, many authors focus the resistancial democratic mind on the BuMa Hang Jang and will produce the great works.

**Key words** : Busan~Masan Resistance, BuMa Hang Jang, democratic struggle, poetical works 『HyugMyung ChelHak』, Short Story <Melgodo Men Gil>, Performance <BuMaHangJang 20JuNuen SangHang JaeHyun Kus